

## Value and utilization of Korean classical novels collected by Han Chang-ki

Yoo, Choon-dong

Associate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echaek@hanmail.net

### Abstract

**Objectives** Han Chang-ki (1936-1997) who was the publisher and editor of "The Deep Rooted Tree" and "The Deep Spring Water" collected national treasure-level cultural heritage, folk materials, Hangul materials, and ancient literature throughout his lif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value and meaning of Korean ancient stories of a total of 520 books of 107 kinds (including works of the same kind).

**Methods** The following methodology was us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aint collected by Mr. Han Chang-ki. (1) To check the total quantity collected, a list was prepared and compared with the original. (2) In the case of major collections,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llections by other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ollectors was checked. Through this process,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complaint collected by Mr. Han Chang-ki were confirmed.

**Conclus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d novel collected by Han Chang-ki are as follows. First, out of a total of 520 books of 107 kinds (including works of the same kind), there are no novels written in Chinese, and all are characterized by old novels written in Korean. Second, the old novel has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feature-length family novels, Banggakbon novels, translated versions of Chinese novels, and printed novels. Third, it is characterized by a book plate of Wolwangeon, which produced the Banggakbon novel. Fourth, rare copies include the Gibong Hoerok, Dangbaekam, Seo's Yukmyeong Haengjeolok, Youhwanghujeon, and the Ju's Cheonghaengrok.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study the entire work.

**Keywords** Han Chang-ki, Suncheon City's Deep-rooted Tree Museum, Deep-rooted Tree, Deep-rooted Water, Hangul Proclamation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0.312.001](https://doi.org/10.23159/IJKC.2024.10.312.001)

Received: Sep. 20. 2024 ; Reviewed: Oct. 10. 2024 ; Accepted: Oct. 15.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의 가치와 활용 방안\*

유춘동

---

### 목 차

1. 서론
  2. 한창기 소장 한글 고소설 및 관련 자료의 주요 성과 개관
  3. 한창기 소장 한글 고소설 및 관련 자료의 활용 방안과 과제
  4. 마무리와 과제
- 

### 1. 서론

‘순천 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의 발행자 겸 편집자였던 한창기 선생(1936~1997)의 업적을 기리고,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했던 국보급 문화유산과 민속자료, 한글 자료 및 각종 고문헌 등을 보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sup>1</sup> 2011년 11월에 그의 유족들과 순천시가 힘을 모아 세운 것이다.

집필자는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에, 당시 박물관의 설립 실무를 맡았던 장여동 선생님에게 자료 검토의 요청을 받은 뒤로,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신 정명기, 이현조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실본(實本)을 조사하였다. 이후에 양승민, 엄태식 선생님과도 수차례 박물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도 열람했다. 이로 인해 다른 연구자들보다 한창기

---

\* 이 글은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2024년 10월 8일에,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뿌리 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의 전통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학회의 요청에 따라 재재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기존에 발표했던 필자의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한창기 선생은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장승에서부터 가구류, 의복류, 가사 도구류, 놀이도구였던 장기판의 장기 앞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속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적(典籍)의 경우 『월인석보(月印釋譜)』와 『농업경』 같은 한글의 원리와 시대적인 변천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일찍 일람(一覽)할 수 있었고 그 가치에 대하여 알 기회도 얻었다.<sup>2</sup> 그래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당시 박물관의 학예사였던 박세연 선생님과 함께 두세 차례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여,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의 가치와 의미를 학계와 일반인에게 알리기도 하였다.<sup>3</sup>

그 결과,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 총 107종 520여 책(동종 작품 포함)이며, 이 중에서 한문본은 없고 모두 한글본 고소설이라는 특징, (2) 수집했던 고소설의 유형은 장편 가문소설, 경관·완관 방각본 소설, 중국소설의 번역본, 활판본 소설 등으로 구분된다는 특징, (3) 국내에서 경관 방각본 소설의 유일한 책판(冊版)인 『월왕전』의 책판<sup>4</sup>이 있다는 중요성, (4) 기타 희귀본으로 『기봉회연록』, 『당백암』, 『서씨 옥여명행기절록』, 『유황후전』, 『주씨청행록』 등의 존재와 내용 등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해당 사항을 나누어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고, 한창기 선생 수집 고소설과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소설의 전체 목록도 학계에 제시하였다.<sup>4</sup>

이후에 필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자료의 개별 검토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에 판소리학회나 고소설학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박물관과 연계하여,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작품에 대한 개별 작품의 연구를 진행하였다.<sup>5</sup> 이로 인해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다채로운 면모와

- 
- 2 이 자리를 통해서 장여동 선생님, 박세연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창기 선생님의 자료 전체를 열람할 수 없었을 것이다.
  - 3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편 (2013). 뿌리깊은나무: 한글고소설 우리말 이야기. 순천: 순천시.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편 (2014).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고문헌 자료의 가치와 인식. 서울: 보고서.
  - 4 정명기(2012).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35. ; 유춘동 (2014).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필사본 번역 고소설에 대한 연구. 우리문화연구, 43.
  - 5 김동욱(2022). 낙질본 『충렬공명행록』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90. ; 김동욱(2018).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양산백전> 고찰. 고소설연구, 46. ; 김영(2022). 명대소설 <開闢衍繹> 번역필사본에 대한 연구. 중국학보, 99. ; 김영(2022).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서유기 번역필사본 연구. 문화와 융합, 44(10). ; 김정녀(2018).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장백암>의 양식적 특징과 가치. 고소설연구, 46. ; 이유진 (2024).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소대성전> 이본의 서사적 지향과 계열적 특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64. ; 이혜진(2020).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필사본 <沈靑傳>의 이본론. 판소리연구, 49. ; 정충권(2016).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 판소리계 소설 필사본의 현황. 국학연구논총, 18. ; 정충권(2016).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 필사본 <심청전 단권> 연구. 판소리연구, 41. ; 조재현(2018). <어룡전> 이본에 대한 종합적 고찰과 연구 방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한글필사본 <어룡전> 2종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6. ; 최수현(2018).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소씨직금기봉(蘇氏織錦寄封)> 수록 고소설 고찰. 고소설연구, 46.

가치 등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검토하지 못한 한창기 선생 수집 한글 고소설이 많은 상황이다.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을 재조명하고 계속해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의 특성을 언급하고, 해당 자료를 학계와 일반인들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방법과 필요성을 논의해 보려 한다.

## 2. 한창기 소장 한글 고소설 및 관련 자료의 주요 성과 개관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고소설의 총량은 107종 520여(동종 작품 포함) 작품이다. 작품은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1)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 『명주기봉』과 같은 장편 가문소설, 경판·완판 등의 방각본소설, (2) 중국소설 『삼국지』, 『서유기』, 『분장루』 등을 한글로 번역한 고소설, (3) 활판본 고소설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여기에 고소설은 아니지만,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고소설과 당대 출판문화 등과 연계된 어록해(語錄解), 방각본 소설의 책판, 한글 반절표 책판, 점 책판과 같은 중요한 자료도 존재한다.

수집된 고소설의 전체 규모와 자료의 특징을 본다면 ‘출판인이자 문화기획자’였던 한창기 선생의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고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 다양했던 한국의 출판문화, 고소설의 유통사(流通史)에 관심을 두었고 이를 정리해보려는 나름의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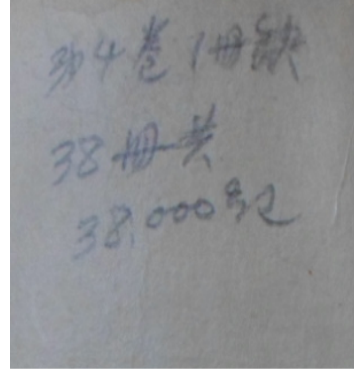
중요한 문제는 한창기 선생이 고소설을 어떠한 계기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생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도자기나 회화를 인사동의 상점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구매했음을 언급하며 밝힌 점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sup>6</sup> 하지만 그가 수집했던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한창기본 『스진별춘형전이라』를 보면 표지 뒷면에 자필로 “전남 보성군 별교 한씨네서”라는 자료의 수집 출처를 알려주는 자필 메모가 있다. 이를 보면 그가 직접 필요한 자료를 수소문했고,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한 것은 적극적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6 한창기(2007). 나는 향아리를 하나 샀다. 뿌리깊은나무의 생각. 서울: 휴머니스트, 29.

자료는 주로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와 관련된 판소리계 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판소리’의 보존과 계승에 각별했던 한창기 선생의 관심과 노력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로는 한창기 선생이 수집해 놓은 여러 고소설에서 볼 수 있다. <사진>처럼 서적의 가격과 관련하여 연필로 써놓은 메모가 있다. 예를 들어 한창기 소장본 39책의 『삼국지』와 8책의 『삼국지』에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표지 뒷면에 38,000원, 50,000원으로 가격을 기재해 놓은 부분이다.<sup>7</sup>



<사진1> 한창기본 『삼국지』에서 볼 수 있는 가격 표시

이러한 가격 표시는 한창기 선생 수집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강대학교 로올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동일한 메모가 확인된다. 서강대 소장 자료는 고서점 통문관(通文館)을 통해서 구매한 것이다.

서강대 소장본과 한창기 소장본을 대조해보면 필적이거나 연필로 가격을 쓴 것이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이나 관련 자료 등은 통문관을 통해서 구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가 있는 것이다. 한창기 선생은 인사동에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이런 저런 자료들을 구매하고 수집했다. 고소설 또한 자신이 보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한창기 선생은 각종 한글 고소설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가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은 형태와 내용 측면에서 다양하다. 특히 서지적 측면, 고소설의 유통사(流通史)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수집본의 대부분은 필사본으로, 이 자료들은 당시 일반 평민들이 읽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외에, 궁중이나 상층 사대부가에서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 『삼국지』나 『서유기』와 같은 중국소설의 번역본,<sup>8</sup> 당시 세책점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었던 세책본 『임화정연』, 목판 제작을 통한 대량 인쇄 방식을 동원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 했던 ‘방각본 소설’ 등이 존재한다.

7 이러한 기록은 『유씨삼대록』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규장각이나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표지가 청색 비단으로 장정(裝幀)되어 있고, 필체 또한 이 자료들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한창기 선생이 특정 소설, 예를 들자면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한글 소설이 어떻게 유통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읽혔는가’에 관심을 두면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수집한 107종 520여(동종 작품 포함) 한글 고소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크게 장편 가문소설(대장편 국문소설), 경판·완판 방각본 소설, 중국소설의 번역본, 활판본 소설, 방각본 책판, 점(占) 책판, 한글 반절표(反切表) 책판, 유일본 소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1. 장편 가문소설(대장편 국문소설)

『명주기봉』, 『명행정의록』, 『벽허담관제언록』, 『부장양문열효록』, 『유씨삼대록』, 『하씨선행후대록』, 『현씨쌍인기』, 『현씨양옹쌍린기』, 『화씨팔대충효록』 등.

## 2.2. 경판·완판 방각본 소설

『공명선생실기』, 『소대성전』, 『숙향전』, 『숙영낭자전』, 『심청전』, 『임진록』, 『장경전』, 『조용전』, 『이해룡전』, 『유충렬전』, 『이대봉전』, 『진대방전』, 『춘향전(『별춘향전』 포함)』, 『화용도』, 『홍길동전』, 『홍부전』 등.

## 2.3. 중국소설의 번역본

『분장루기』, 『삼국지』(공명선생실기, 조자룡전, 적벽대전, 화용도, 언삼국지 등 포함), 『서유기』, 『양산백전』, 『월봉기』, 『초한전』 등.

## 2.4. 활판본 소설

『금향정기』, 『서한연의』, 『서상기』, 『이진사전』, 『직금회문』 등.

## 2.5. 방각본 책판, 점(占) 책판, 한글 반절표(反切表) 책판

경판본 『월왕전』의 책판(冊版), 점 책판, 한글 반절표 책판 등.

www.kci.go.kr

## 2.6. 유일본 소설

『기봉회연록』(일명 『유봉상전』), 『당백암』, 『서씨육여명행기절록』 등.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장편 가문소설(대장편 국문소설) 중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 『유씨삼대록』이다. 이 작품은 일찍이 『열하일기』에 소개되었듯이 18세기 초반에 창작되어 널리 향유된 소설이다. 사대부 가문의 창달과 번영, 인생살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밀도 높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유씨삼대록』은 현재 여러 이본(異本)이 확인된다.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유씨삼대록』은 현존하는 이본 중에서 형태적인 측면이나 내용에서 선본(善本)으로 판단된다.<sup>9</sup> 그 이유는 본문의 필적이 전문 필사자나 사자관(寫字官) 급의 필사자가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표지와 종이의 재질 등이 당시 상층 사대부가 이상에서 만 나올 수 있는 자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경관·완판 방각본 소설은 각 작품마다 여러 종을 수집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삼국지』 6종, 『소대성전』 2종, 『심청전』 5종, 『열녀춘향수절가』 4종(별춘향전, 열녀춘향수절가 포함), 『유충열전』 13종, 『이대봉전』 2종, 『조웅전』 10종, 『초한전』 6종, 『홍길동전』 2종(경판과 완판 포함), 『화용도』 9종 식이다. 이처럼 각 작품마다 여러 종의 판본을 수집했던 이유는 방각본이 제작된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방각본을 생산했던 각각의 방각본 제작 업체인 방각소(坊刻所)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방각본 소설을 생산하고 간행했는지를 밝힐 목적에서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조웅전』의 경우,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만으로, 전라도 전주 지역에서 존재했던 각 방각업체 별로 제작하고 판매했던 방각본 『조웅전』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방각본 소설’의 유통과 방각본 업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한창기 선생 수집 고소설의 특징은 중국소설의 번역본이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지』이다. 해당 작품의 경우에는 수집본이 14종이나 된다. 필사본 형태로 만든 완질본에서부터 낙질본(落帙本), 그리고 방각본이나 활판본 형태의 『삼국지』까지 다양한 『삼국지』를 수집하였다. 한창기 선생이 조선에서 읽었던 『삼국지』 모두를 수집하려 했던 것처럼, 수집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이유는 『삼국지』가 비록 중국소설이지만 우리 소설이라고 할 만큼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는 친숙했고 많이 읽혔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보인다.

9 원 책은 17권 17책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1책이 결본(缺本)인 16권 16책의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번역본의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설사에서 ‘중국 번역본 소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다. 읽기 어려운 중국어 백화(白話)로 쓰여진 중국소설은 조선에 유입되자마자 독자들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중국소설의 내용은 과감하게 우리 문화로의 적용과 변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서사적 미감에 따라서 원전과 다른 번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국화(自國化)로의 변모, 대중을 의식한 변형과 변개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중국 번역본 소설’의 번역 과정, 번역의 방식과 추이 등을 살펴보다면 우리 고소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창기 선생은 중국소설의 번역본에 관심을 두었고 수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창기 선생 수집본의 가장 큰 가치는 고소설 작품만이 아니라, 방각본 소설의 책판(冊版), 점(占) 책판, 한글 반절표(反切表) 책판처럼, 고소설의 출판이나 관련 사항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또한 수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희귀본도 수집하였다. 현재 방각본 소설은 서울에서 생산된 경판,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완판, 안성에서 생산된 안성판 등으로 각각의 지역별로 생산된 방각본 소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정작 이 책을 찍어냈던 온전한 형태의 책판은 볼 수 없다.<sup>10</sup>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방각본 소설의 책판은 조선 시대에 서울 한양(漢陽) 유동(由洞) 방각업체에서 제작했던 『월왕전』의 책판이다. 이 책판은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경판 방각본 소설의 생산, 제작 방법, 인쇄 방식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글 반절표와 점 책판은 한글을 쉽게 익히기 위하여 만든 자모음(字母音) 체계의 학습 도구이고,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길흉(吉凶)을 알려주는 실용서적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자료들 역시 현재 여러 인쇄본이 남아있지만, 정작 중요한 책판 자체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그의 남다른 수집 안목과 현재 확인된 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이 확인된다.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한글 고소설은 모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해당 박물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주요 희귀본으로 『기봉회연록』, 『당백암』, 『서씨육여명행기절록』, 『유황후전』, 『주씨청행록』 등이 있다.<sup>11</sup> 『유황후전』은 기존에 알려진 『유황후전』과의 선후관계 문제, 『태아선적강록』이나 『정비전』과 같은 다른 고소설과의 관련 양상을 규명해 볼

10 이태영(2007).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

11 정명기, 엄태식, 조재현, 이선형 선생에 의해서 해당 작품에 대한 특징과 의미가 파악되었다. 해당 논문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 간행한 단행본에 실려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편(2013). 뿌리깊은나무: 한글고소설 우리말 이야기. 순천: 순천시.

수 있는 측면에서,<sup>12</sup> 『주씨청행록』은 고소설 『도앵행』의 자장권(磁場圈)에 속해 있지만, 이 작품과는 다른 후대의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백암』은 몽유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차용함과 동시에 주인공의 문답을 통해서 작품을 이끌어어나가는 독특한 작품이란 점 등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러한 네 종의 희귀본은 고소설사의 관점에서 고소설의 이본 생성, 고소설의 유통, 수용 미학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고소설학회와 판소리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인 『충렬공명행록』, 『양산백전』, 『개벽연역』, 『서유기』, 『장백암』, 『소대성전』, 『심청전』, 『소씨적금기봉』 등이 자세히 논의 되었고,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소장 판소리계 소설 필사본에 집중된 연구도 있었다. 이를 통해서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박물관이 개관한 뒤로, 십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밝혀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 전체의 양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연구자들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표〉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소장 고소설 목록과 연구 상황

번호	제명	연구 상황		번호	제명	연구 상황	
1	개벽연의	1종	○	2	곽씨열녀전	2종	-
3	구운몽	2종	○	4	권용선전	1종	-
5	규중향어	1종	-	6	금향정기	1종	○
7	기연회봉록	1종	○	8	김진옥전	2종	-
9	단종대왕실기	2종	-	10	당백암	2종	○
11	매화전	1종	-	12	(대활극) 명금	1종	○
13	명사십리	1종	-	14	명주기봉	1종	-
15	명행정의록	1종	-	16	박부인전(박씨전)	5종	○
17	박정재전	1종	-	18	벽허담관제연록	1종	-
19	복선화음록	1종	-	20	부장양문효열록	1종	-
21	분장루기	1종	-	22	사씨남정기	5종	-
23	삼국지	14종	-	24	삼학사전	1종	-
25	서상기	1종	○	26	서씨육여 명행기절록	1종	-
27	서유기	2종	○	28	서한연의	2종	-
29	세종대왕실기	1종	-	30	소대성전	5종	○

12 김진영·차충환(2010). <태아선적강록>과 <유황후전>의 비교 연구. 어문연구, 146.

31	소설전	1종	-	32	소씨직금기봉	1종	○
33	수경전	1종	-	34	숙영낭자전	5종	○
35	숙향전	1종	-	36	심청전	6종	○
37	안락국전	1종	-	38	양산백전	1종	○
39	어룡전	3종	○	40	의열비충효록 (마철전과 합철)	1종	-
41	여행록	1종	-	42	옥난기연록	1종	-
43	옥단춘전	2종	○	44	옥련몽	8종	-
45	옥루몽	7종	-	46	옥린몽	4종	-
47	옥증가인	1종	○	48	옥환기봉	2종	-
49	옹고집전	1종	○	50	왕랑반혼전	2종	-
51	용문전	1종	-	52	울지경덕전	1종	-
53	월봉기전	1종	-	54	유씨삼대록	1종	-
55	유씨전	1종	○	56	유충열전	23종	-
57	유한당	1종	○	58	유황후전	1종	○
59	유효공선행록	1종	○	60	육염기	1종	○
61	이대봉전	3종	-	62	이정란전	1종	-
63	이진사전	1종	-	64	이태조실기	1종	-
65	이충효전	1종	-	66	이해룡전	1종	-
67	임진록 (임진왜란)	3종	-	68	임화정연기	2종	○
69	장경전	2종	○	70	장국진전	1종	-
71	장백전	2종	○	72	장익성전	1종	-
73	장풍운전	1종	○	74	장화홍련전	1종	○
75	적벽대전	1종	-	76	적성의전	1종	○
77	전등신화 (전등신화구해)	2종	-	78	정두경전	1종	-
79	정수경전	1종	-	80	정을선전	2종	-
81	정진사전	1종	-	82	정현무전	1종	-
83	조대가전	1종	-	84	조자룡전	1종	-
85	조웅전	13종	○	86	주씨청행록	1종	○
87	주봉전	1종	-	88	진대방전	6종	○
89	창란호연록	2종	-	90	창선감의록	9종	-
91	초한전	6종	-	92	춘향전(별춘향전, 열녀춘향전, 춘향가 포함)	9종	△
93	충열공명행록	2종	○	94	토생원전	1종	-
95	팔장사전	1종	○	96	하씨선행후대록	1종	-
97	현씨쌍인기 (현씨양옹쌍린기)	7종	-	98	홍계월전	1종	-

	포함)						
99	홍길동전	2종	○	100	홍백화전	2종	-
101	화용도	9종	-	102	화씨총효록(화씨팔대 총효록 포함)	5종	-
103	황운전	3종	-	104	황월선전	1종	-
105	황태을전	1종(2책)	-	106	홍부전	1종	○
107	언삼국지	1종	-	108	제목 미상의 필사본	6종	-

해당 <표>는 현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고소설로, 연구가 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은 규모가 거질(巨帙)인 작품, 원래 거질으로 존재했지만 일부 권만 남은 낙질본, 『삼국지』처럼 거질로 된 중국소설이면서 여러 종이 수집된 작품, 방각본 소설처럼 서지적인 검토와 판본 비교를 통한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분명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지만 실제 연구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단권으로 된 작품을 연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노력은 배로 들고 그에 비하여 결과는 미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작품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완성될 때,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고소설의 가치와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 3. 한창기 소장 한글 고소설 및 관련 자료의 활용 방안과 과제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귀중한 고소설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의 손쉬운 접근이 방법의 요구된다. 2011년 개관이 이루어진 뒤로 지금까지 ‘순천 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서만 운영하는 독자적인 누리집(홈페이지)가 없었다.

현재 인터넷에서 박물관을 검색해보면 순천 낙안읍성으로 연결되고, 그 홈페이지의 하위 분류의 하나로 ‘순천 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 소개된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본문에는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각종 고소설에 대한 정보, 자료의 원문 등은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 연구의 활성화와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누리집(홈페이지)의 구축, 자료의 아카이빙을 통한 원문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가치 규명은 고소설이나 판소리 관련 학회와 연계한 학술대회만 국한시켜 운영할 것이 아니다.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고소

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한글 관련 자료, 문화 자료, 근현대 잡지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 단체, 한문 문집 자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 단체, 출판문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학술 단체, 음반 및 가요 등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학술 단체와의 폭넓은 연계와 교류, 이를 단체와의 공동 학술대회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국어사적 가치(한영균), 한문 문집 자료의 가치(백진우), 판소리 음반 전집(김석배), 출판문화 자료(유춘동), 시조집 가치(권순희)를 규명하기 위하여 학술 대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를 재확인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할 때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자료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 질 것이다.

셋째,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영인이나 현대역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단행본 보다는 학술 논문의 집필을 요구하고 이를 인정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러한 고소설의 현대역본이나 영인본을 제작할 여건이 거의 없어졌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리집(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이러한 기초 토대 작업이 마련된다면, 박물관의 활성화,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각종 자료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넷째, 박물관에서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각종 자료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료를 더욱더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고, 그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한창기 선생의 출판사 관련 자료와 육필 원고 등이 되어야겠지만, 이와 함께 고소설의 책판, 중요한 고소설 작품, 판소리 관련 자료 등도 함께 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보존 관리해야만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o, Jae-hyun. (2012). A study of Yuhwanghujeon owned by the Ppurigipeunnamu museum.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35.
- Chung, Myung-kee. (2012). A Study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uncheon's ppurigibeunnamu museum's gososeol,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35.
- Eom Tae-sik. (2012). Relationship between Jussicheonghaengnok and Doaenghaeng and their compositional features.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35.
- Yoo, Choon-dong. (2014). A Study on The Korean Manuscripts of Old Novels in Translation that Han Changgi Collected.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43.

##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고소설의 가치와 활용 방안

유춘동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의 발행자 겸 편집자였던 한창기 선생(1936~1997)은 평생에 걸쳐 국보급 문화유산, 민속자료, 한글 자료, 고문헌을 수집하였다. 이 글은 그 중에서 총 107종 520여 책(동종 작품 포함)의 한글 고소설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방법**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했다. (1) 수집했던 총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 주요 소장본의 경우, 다른 기관 및 개인 소장자의 소장 유무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했다.

**결론**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고소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07종 520여 책(동종 작품 포함) 중에서 한문본은 없고 모두 한글본 고소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고소설은 장편 가문소설, 경판·완판 방각본 소설, 중국소설의 번역본, 활판본 소설 등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셋째, 경판 방각본 소설을 찍어냈던 『월왕전』의 책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희귀본으로 『기봉회연록』, 『당백암』, 『서씨육여명행기절록』, 『유황후전』, 『주씨청행록』 등이 있다. 앞으로 전체 작품을 확인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한창기, 순천 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한글 고소설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 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